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대구시의회 성명 발표

대구시의회는 지난 달 국회에 제출된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경주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시의회는 신라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도 경주는 국가지정문화재 만도 207점에 이르고,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 2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리는 물론이고 온 인류가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역사문화도시임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문화사업의 우선순위 첫머리에 경주가 놓여져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그동안 경주의 문화유적 발굴, 정비, 복원의 책임이 경주시민의 몫이었고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아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명실공히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시의회의 성명은 광주시의회가 경주특별법 제정반대 결의를 하고,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구경북경제통합 등 시도 상생분위기 고조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